

차별화된 교육,

기독교적 고전교육

글 안정진 마산제일교회 부목사

한국 사회는 자녀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말 그대로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기독교 교육은 하나의 '대안(a reaction)'이 아니라, 유일한 '안(the action)'이다. 공립학교가 가진 문제들-예를 들어, 교내폭력과 집단따돌림, 약물과 성범죄, 성적순으로 등급이 매겨진 학교생활, 무신론적 교과과정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기독교 교육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니열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병의 증상일 뿐이지, 질병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은 질병의 근원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전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단지 교육방법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세계관의 갈등을 이해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에 관한 것이다. 고전교육은 학교 뿐 아니라 홈스쿨링을 위해서도 유용한 내용과 도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분명 내용 있는 '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교육 회복운동이 일어났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이해는 기독교적 고전교육의 실천과 적용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고전교육의 재발견

미국 역사에서 공교육은 세 가지 교육목표를 추구해왔다: '리더십, 이민자 교육, 기술 교육.' 1869년 이전에는 주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미국의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잘 다스리고, 잘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에 모든 힘을 쏟았다. 1860년대부터 1940년 초까지는 주로 '이민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밀려드는 이민자들이 영어로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3R's) 능력을 배양하고, 미국화(Americanizing)시키는데 집중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는 '기술교육'(technology education)에 초점을 두고 '좋은 직업과 평준화를 위해 훈련'시켜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 사회 안에서 지식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교육이 어디로 편중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미국의 기독교적 고전교육 운동은 낙관적 인본주의적 교육에 저항한 기독교 신앙운동의 결과였다. 또한 지금까지 파편화 되어온 세 가지 교육목표를 통합, 실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데이빗 히스(David V. Hicks)와 몰티머 애들러(Mortimer J. Adler)의 주도아래 고전교육 회복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고대 르네상스의 고전 인본주의와 중세의 스콜라주의적 고전교육이었지 전혀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아니었다. 이런 인본주의적 고전교육의 회복운동이 공교육 가운데 싹틀 바로 그 시기에,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고전교육이 기독교적 조망아래 재발견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인물에 주목해야 하는데, 더글라스 윌슨(D. Wilson)과 도로시 세이어즈(D. L. Sayers, 1893-1957)이다.

단테의 번역가로 유명한 세이어즈는 1947년에 '잃어버린 배움의 도구'(The Lost Tools of Learning)라는 에세이를 통해 영국사회 안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학교가 실패했음을 통감하며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중세의 교육방법인 트리비움(Trivium, 3학)을 숙달하는 방법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회, 지식의 자유가 보존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육이 그 참된 목표를 잃어가기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시점이 바로 중세 말기이다. 오늘 날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은 잘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다른 것은 다 배워도 '배움의 기술'(3학)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녀에게 큰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에세이는 이후 미국에서 고전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되었다.

윌슨은 개혁파교회(CREC)의 목사로서 해군으로 복무하던 시절 세이어즈의 에세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딸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전교육 원리를 신봉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세워 그 첫 번째 학급에 자신의 그 딸을 두었다. 이 학교가 아이다호주 모스코우(Moscow, Idaho)에 위치한 로고스스쿨(Logos School)이다. 개혁파 교회를 배경으로 한 이 학교는 1981년 9월에 한 지역교회의 지하실을 빌려 18명의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더불어 개교하였고, 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윌슨은 학교를 운영한 십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Recovering The Lost Tools of Learning: An Approach to Distinctively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을 1991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은 미국 내에 그동안 잠들어 있던 복음적인 교회와 신자들을 일깨우는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윌슨의 학교와 그의 저서에 영향을 받아 '고전적, 그리스도 중심적 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이란 모토를 건 수많은 학교들이 현재까지 세워지게

되었고, 이 학교들의 연합이 미국기독교고전교육연합(ACCS)으로 발전하였다. ACCS는 1994년 7개의 협약학교로 시작하여,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8개국에 걸쳐 6개의 고전인문대학과 약 300개의 회원학교 및 출판사를 두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홈스쿨연합체가 가맹되어 있다. 천년 이상의 고전교육의 전통에 비해, 기독교적 고전교육 운동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차별화된 기독교 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고전교육의 철학적 전제들

‘고전’ 혹은 ‘고전교육’은 다소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 상에서 고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음악과 리더십에서부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고전이라는 수식어를 단 수 많은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전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장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인 교육의 영역에서 고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무엇일까? 페린이 “고전교육이란 권위 있고, 전통적이며, 영속적인 형식의 교육으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시작했고 역사를 거쳐 발전을 거듭했으며 21세기에 와서 갱신,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미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전교육 회복운동이 일어났었다. 이미 회복된 고전교육의 철학적 전제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큰 맥락에서 기독교적 고전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미와 서양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접근의 고전교육이 이미 존재 해 왔다. 고전교육 방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고, 역사를 거치는 동안 복원, 발전해 왔으며, 결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교육모델이다. 비록 방법론에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시대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전교육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고전교육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크게 세 가지 색의 철학적 기초를 만나게 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이 삼인삼색의 철학적 기초 위에 지금까지 다양한 고전교육의 건축물들이 세워져 왔다. 현대의 고전교육 회복사례를 통해 나타난 철학적 전제를 간단히 살펴보자.

도덕적 고전교육

가장 먼저 살펴볼 회복된 고전교육의 형태는 데이빗 힉스의 것이다. 힉스는 플라톤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아 도덕적 탁월성을 지닌 이상적 인간을 교육을 통해 이루려 하였다. 이러한 고전교육의 아이디어는 그의 책, *Norms and Nobility*(1981)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그의 책, 『새로 읽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역시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준다. 그는 도덕적 인간을 위해 인간의 잠재력을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인본주의적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것은 르네상스의 고전적 인본주의에 회복이다. 이런 이유에서, 힉스의 고전교육을 ‘도덕적 고전교육’라 부른다.

민주주의적 고전교육

다음은, 애들러에 의해 주창된 ‘민주주의적 고전교육’이다. 그는 유명한 ‘파이데이아 제안’(paideia proposal)을 통해 미국의 하향 평준화된 공교육을 고전적 접근, 특히 ‘고전’(the Great Books)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하려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가인 호레이스 만(Horace Mann)과 존 듀이(John Dewey)의 사상적 계승자였고, 그들의 핵심 신앙은 ‘민주주의’(democracy)였다—사실 미국의 공교육은 ‘민주주의’라는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 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용

어는 ‘민중 혹은 사람에 의한 통치’(the rule of demos)를 의미한다. 즉 ‘사람들’(demos)이 모든 것-전통, 통치자, 관습,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인간 내부에 새로운 신앙을 두려는 시대정신(zeitgeist)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질서에 사는 우리들은 민주주의가 마냥 좋은 것이라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불행하게도, 어떤 보수적인 단체의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동의어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신념이 그 시작에서부터 종교적인 아이디어임을 깊이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들의 주장처럼, 교육에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거나, 인간 안에 교육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교육은 철저히 인간 내부에 소망을 두고,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구원을 주려는 허황된 비전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교육은 단지 ‘공평’의 문제이지, 더 이상 ‘은혜와 감사’의 문제가 아니다-애들러는 이성을 지식의 중요한 근원 및 검증 수단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론을 교육에 적용하였다; 히스의 교육목표가 도덕적 인간이었듯이, 애들러의 교육목표는 지성을 갖춘 인간이었다.

기독교적 고전교육

우리의 관심사인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방법론에 있어서 위의 두 가지 고전교육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철학적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전제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그분의 주권이다. 히스가 플라톤에 기초한 르네상스 정신의 고전적 인본주의로 돌아가려 했다면, 윌슨은 어거스틴(Augustine)의 사상을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며 ‘신본주의’(Deocracy)로 돌아가려 했다. 애들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위에 이성과 합리를 내세우며 중세의 스콜라주의로 돌아가려 했다면, 윌슨은 역사적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 했다. 고전교육의 ‘방법론적 목표’에서도 히스와 애들러는 윌슨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고전교육의 방법론은 트리비움(trivium, 3학)이다. 트리비움에 관해선 다음 호에 살펴 보겠지만, 이것은 ‘문법’에서 ‘논리’로, ‘논리’에서 다시 ‘수사’로 발전해 간다. 즉 수사학이 목표이다. 하지만 히스와 애들러는 수사학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논리학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각각 도덕성과 성취를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homo moralis)과 지성과 논리를 지향하는 ‘사고하는 인간’(homo sapiens)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슨과 ACCS는 ‘예배하는 인간’(homo adorans)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고전교육의 적용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상의 전제들의 요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고대 문화와 학문의 교육을 ‘무지’로 정의한다. 이 ‘무지’는 소크라테스의 신념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metanoia)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혹은 사과합니다”는 의미가 아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 죄와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고전교육은 고대로부터 시작된 문화와 학문을 그리스도교로 돌이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관한 것이다.

